



[산업]
삼성준법위 첫 권고
“JY가 나서 승계 등
법준수 약속을”
06

횡령·배임·일감몰아주기 등은 비단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중견 기업집단 또한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당 지원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에 이어 중견기업에도 일감 몰아주기 관련 압박을 가하고 있는 만큼 중견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메트로경제는 주요 중견기업의 민낯을 파헤치는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주>

오너는 횡령·稅포탈 일가는 배당금 잔치

증권재벌의 민낯

삼양식품 ① 흔들리는 경영권

전인장 회장, 징역 3년 실형 확정
김정수 사장도 징역 2년 집유 3년
지난해 결산 배당금 2배 확대로
오너일가에 28억 이상 현금배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최근 ‘불닭볶음면’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삼양식품이 오너리스크에 휘말리면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57)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하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까지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양식품은 2019년 결산 배당금을 2배 확대해 오너일가에 28억 원 이상을 지급하게 됐다.

◆ 전인장 회장의 횡령·조세포탈 혐의

전 회장은 회삿돈 4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정 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배우자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56)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 회장 부부는 이 돈을 부부의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삿돈 횡령 혐의와 함께 전 회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았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 계열사 돈 29억 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다.

재판부는 다만 배임 혐의에 대해선 “외식업체를 지원한 자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손해가 분명한데도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여기에 전 회장은 하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수백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전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위세금계

<삼양식품 주주 현황>

주주명	지분율(%)
삼양내츄럴스(주)	33.26
전인장	3.13
김전수	4.33
전인성	1.99
전문경	0.27
전세경	0.19
전병우	0.56
전병주	0.13
삼양이건장학재단	1.68
(주)어스와이캠퍼스	1.67
계	47.2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산서 교부등)·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8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삼양식품은 두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같은 기간 321회에 걸쳐 총 533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 회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탈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회장 측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주체로 지목된 회사들이 실제가 없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전 회장 측은 “두 회사는 실제가 없는 일종의 사업부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혐의가 확정된 바 있다”며 “이 판결에 따르면 두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계산서의) 발부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뤄진 거래인 만큼 적용 범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 오너일가 배당은 지속 확대

오너일가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탈세 혐의까지 추가로 받는 상황에서 삼양식품은 2019년 결산 배당금을 주당 800원으로 결정했다.

<3면에 계속>

/김민지 기자 kmj@metroseoul.co.kr



Economy

코스피
1908.27
(-54.66)코스닥
595.61
(-24.36)금리
(국고채 3년)
1.09
(0.00)환율
(원·달러)
1193.00
(-0.20) (11일)

산업계 곳곳 생사위기 “잔인한 코로나”

- ① ‘빅5’ 흥아해운 결국 워크아웃
- ② 날개 꺾인 항공업계 “추락직전”
- ③ 인천공항 입점사 “임대료 인하”



흥아해운.

산업계 전반에도 코로나19의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업종을 불문하고 산업이 전체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등 곳곳에서 ‘줄도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재무상 어려움을 겪었던 해운업계와 항공업계에서는 그에 따른 여파가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별씨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한 기업도 나왔다. 항공업계는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선에서 이미 하늘길이 대부분 막혀 ‘적자의 늪’에 빠진 모습이다. ‘제2의 흥아해운’이 나올지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해운업계 ‘빅5’로 손꼽히는 흥아해운이 결국 코로나19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쓰러졌다. 5위 해운사인 흥아해운은 지난 10일 산업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하는 채권금융기관 워크아웃 신청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워크아웃은 기업의 재

무구조 개선작업으로서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1961년 세워진 흥아해운은 선복량 기준 현대상선, 고려해운, SM상선, 장금상선에 이은 국내 5위 해운사다. 동남아시아 항로 시장의 선복 과잉 공급으로 컨테이너선 시황이 악화하며 2016년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런데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요 감소에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에 확산되며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 악화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하늘길이 막힌 항공업계에도 흥아해운과 같은 사례가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적 항공사들은 심각한 경영 난에 빠졌다. 대한항공을 제외한 전 항공사는 지난해부터 노 재팬·홍콩 시위

등으로 적자전환을 면치 못했다. 그 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 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며 일부 LCC는 국제선이 아예 ‘셧다운’되기에 이르렀다.

당장 유류비·공항시설 사용료 등 고정비용은 들어가지만 수익은 나지 않는 적자 구조에 놓인 것이다.

한편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11일 기준 114개국에 달하면서, 인천국제공항 내 입점업체 사이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여파로 적자폭이 커져 매출에 연동된 임대료 책정 등 방식으로 임대료를 한시적으로라도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연극 공연도 온라인으로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되는 연극 ‘브라보 엄사장’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매도 뒷북 규제… 실효성 논란

“한시적 금지” 요구 빗발

정부가 지난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요동치는 주식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공매도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선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뒷북수습’이란 비판과 함께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총 11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유가증권 시장에는 파마셀 1개 종목과 코스닥시장에는 디앤에이링크, 마크로젠, 씨젠, 아이티센, 앱클론, 애스ес바이오, 엘컴텍, 오

상사이엘, 인트로바이오, 제이에스티나 등 10개 종목이다.

이들 종목은 새로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적용된 첫 사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3개월간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평균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도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늘렸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쌈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5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코스피 2.78% 급락 코스닥 600선 붕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공포가 국내 주식시장을 또다시 강타했다. 11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4.66포인트(2.78%) 하락한 1908.27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은 6960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우며 여전한 매도세를 보였다. 기관은 4658억원을 순매도했으며 개인은 1조829억원을 순매수했다.

오후 한때 낙폭이 3%를 넘어서며 1900선을 내주기도 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19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8월 6일(장중 1891.81)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더 컸다. 외국인 매도 우위 속에 전 거래일보다 24.36포인트(3.93%) 급락한 595.61에 장을 마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